

# “설 코앞인데...그나마 오는 손님도 비싸다며 돌아서”

## 르포-명절맞은 유통가 둘러보니

“직접 먹을 건 고사하고, 차례상에 올릴 굴비만이 라도 사려 했는데 작년 추석보다 가격이 10% 넘게 올라 고민이 되네요...”

4일 오후 1시께 찾은 광주시 동구 학동의 남광주시장. 설 명절을 닮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명절 대목을 맞아 평소보다 생기가 돌았지만, 정작 상인들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광주시장에서 15년째 굴비를 판매하고 있는 상인 A씨도 가격을 묻더니 발길을 돌리는 고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손님이 가격을 묻더니 고민하는 듯 하다 별말 없이 떠났다”며 “아무래도 비싼 가격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판매 중인 보리굴비 10마리 가격은 10만원으로 작년 추석 직전 가격인 8만5000원에 비하

## 썰렁한 전통시장 대목 특수 실종

고물가에 상인도 소비자도 한숨  
과일 가격 폭등에 못난이 과일 인기  
백화점 선물세트 가격에 놀라  
저렴한 인근 마트로 발길 돌리기도

면 1만5000원이 올랐다.

그는 “굴비 도매가격이 많이 올라 팔아봐야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손님들은 비싸다고 난리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정부지로 치솟은 과일 가격에 청과 골목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아 있었다.

멋스럽게 포장돼 쌓여있는 과일 선물세트를 뒤로

하고 정가보다 50% 가량 싼 ‘못난이 과일’을 찾는 시민들 뿐이었다.

30년 경력의 과일 판매상 B씨는 “선물세트 판매는 언감생심, 정상품을 찾는 소비자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과일은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는데, 비싸게 사와 썩어버리면 골치가 아파 최근엔 못난이 과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점포 앞에서 가격을 묻곤 고민하는 듯 하다 자리를 뜨길 반복했다.

아내와 함께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남광주시장을 찾았다는 이영창(47)씨는 “아내가 1년에 두 차례 있는 명절인데 굴비는 올려야 겠지 않냐고 해서 나왔다”며 “차례상에 굴비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데 가격이 이래서 요즘 누가 예전처럼 차례상을 차리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씨는 이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게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막상 그런 것도 아닌 것 같

다”며 혀를 찼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분위기도 설 대목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비슷한 시각 찾은 광주시 서구의 광주신세계 지하 1층 매장에는 선물세트를 둘러보는 고객이 많았지만,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박혜원(여·59)씨는 “사과 5개, 배 4개가 든 명품 과일 선물세트가 19만원이나 한다. 작년 설과 비교하면 구성은 빈약해지고 가격은 2-3만원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비싼 백화점 선물세트 대신 비교적 저렴한 대형마트 선물세트를 찾아 나선 이들도 있었다. 광주신세계와 옆 이마트 광주점에서 만난 한 시민은 “백화점 선물세트 가격이 엄두가 안나 비슷한 구성이라도 절반 정도 싼 가격인 대형마트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청과 담당 판매 관계자는 “최근 과일 가격이 비싸다 보니 반대로 과일을 선물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며 “그렇지만 워낙 많이 올라 ‘가성비’인 6만5000원짜리 사과, 배 세트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4인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1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58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8.9%와 5.8% 늘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차례상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매우 부담을 느낀다’도 71%나 됐다. ‘부담을 느낀다’(27%) 등이었다. 성수품 중 부담이 가장 큰 품목은 과일(65%)이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설명절을 앞둔 4일 오전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적장애인 등친 파렴치범들의 최후

### 여성행세 하며 데이트 주선 속여 900만원 가로챈 남성 징역형

SNS메신저 채팅방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을 소개해주거나 데이트할 것처럼 장애인들을 속여 9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월과 8월이 선고된 1심을 묶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지난해 4월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처럼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14회에 걸쳐 총 55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께 데이트할 여성을 소개 해줄 것처럼 장애인 C씨를 속여 총 13회에 걸쳐 3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나누는 채팅방에서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여성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는 장애인에게 값을 것처럼 돈을 빌렸지만 나중에는 ‘요리를 해주겠다’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해 3만~150만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과 데이트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을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가로채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해온 사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결혼하고 용돈 벌어라”...외국인 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벌금형

허위 증서로 체류 자격 취득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남녀와 브로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공전 자기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기록 등 형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B(53)씨와 태국출신 C(여·46)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000만원을 받고 B씨와 태국인 여성 C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했고, B·C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지인인 C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B씨에게 “용돈벌이해라. 외국여성 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직장 동료의 인

적사항을 알려주고 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 B·C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포함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대출 유도 7000만원 가로챈 20대 남성 구속

지적장애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지

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접근해 4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 모바일 소액 결제를 통해 3000만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대납하도록 했다.

A씨는 도심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장애인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연락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